

[삼보사찰 천리순례 7] 종교지도자들도 격려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09 07:30

댓글 0



[앵커] 한국불교 중흥결사인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어느덧 법보종찰 해인사를 눈앞에 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전국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순례단을 찾아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웃종교에서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B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리순례를 응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뉴스



2021년 10월 27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6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5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3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2일 전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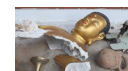
인기뉴스



'인근 공사 갈등'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불상 훼손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천진암 역사 바로잡기' 본격화.. 대불청 TF 구성



물라상가 인도불교 복원·수행지도자 양성



3D 프린터로 전국 석불 한자 리서 전시 - 10/26~11/9



윤석열 "독실한 불자.. 정부가 불교계 지원해야"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천진암 역사 바로잡기' 본격화.. 대불청 TF 구성
혜담스님, 높이 5.5m '오백나한도' 첫 공개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 66명·명사 16명 품수
조계종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사 지현·봉은사 원명·보문사 선조스님 주지 연임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 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